

# 정상호 사진작가, '빈 둥지' 흑백 사진전

13일까지 전북자치도청 전시실서 55점 작품 전시

“아이들 웃음소리 사라진 자리, 잡풀만 무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을 홀로 걸으며 사라져가는 마을의 시간을 기록한 사진작가 정상호가 도민들 앞에 섰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시실에서 지난 2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사진전 '빈 둥지'를 통해서다.

이번 전시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자리다.

정 사진작가는 지난 1년여 동안 김제, 익산, 정읍 등 전북 도내를 직접 발로 뛰며 텅 빈 농가와 폐교를 카메라에 담았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은 총 55점, 모두 흑백사진이다.

사진 속에는 한때 아이들이 뛰놀았을 운동장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이제 어른 키만큼 자란 잡풀이 가득하다. 교실 창문은 깨져 있고, 칠판은 먼지에 덮였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천천히 허물어지고 있다. 마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만이 남아 적막한 시간을 견디고 있다.

정 작가는 “시골에 가보면 인구 소멸이 말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폐교가 하나둘 늘어나고



전북특별자치도 곳곳을 홀로 걸으며 사라져가는 마을의 시간을 기록한 사진작가 정상호가 도민들 앞에 섰다.

빈집이 잡풀에 묻혀간다.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화려한 색을 덜어내고 흑백을 택했다. 색이 빠진 자리에는 대신 시간의 무게와 고요한 슬픔이 더 또렷이 남았다.

정 작가는 “흑백은 본질을 드러낸다”며 “사라지는 공간의 쓸쓸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퇴직한 그는 이후 사진에 깊이 몰두해 왔다. 이번 전시는 그의 일곱 번째 개인전이다. 앞서 강원도 산골 폐해 현장과 서울 강남 구룡마을 판자촌 등 사회적 약자와 재난의 현장을 기록하며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꾸준히 조명해왔다.

그의 사진은 단순한 풍경 기록이 아니다. 무

너진 집 한 채, 비어버린 교실 한 칸은 곧 지역의 미래를 묻는 질문이다.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묵직한 물음이 사진마다 담겨 있다.

정 사진작가는 “사진을 통해 도민들이 우리 지역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빈 둥지”는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을 남긴다. 전시장에 걸린 55점의 흑백사진은 말없이 묻는다. 사라져가는 마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속 깊은 질문이다.

이번 사진전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도민에게 보내는 한 작가의 진심 어린 경고장이자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 4부 '굿패와 전쟁' (27)

## 이놈은 죽여야 해!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너, 도망쳐왔냐?”  
명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사내는 다시 남준을 바라봤는데 눈빛이 흉악하게 변했다.  
“너는 강씨 집안 놈인데, 어떻게 산까냐, 응?”  
사내는 경멸조로 말하며 남준의 어깨를 툭 밀었다. 남준은 무뎠미로 찬바람이 몰아치는 걸 느꼈다.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아저씨,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명희가 얼른 사내와 남준 사이로 끼어들었다.  
“너, 어떻게 이런 놈하고 같이 다니는 거야? 병립 강용대란 놈이 우리 황전 박씨들을 다 죽였다는 거 몰라?”  
사내는 잔뜩 이마를 구기면서 명희를 욕박질했다.

“너하고 무슨 사이야?”  
그때 다시 장총을 소지한 남자들이 무리가 숲속에서 나왔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다가왔다. 명희의 얼굴이 환에게 불을 켜 듯 밝아졌다.

“삼촌.”  
명희는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사내를 불렀다. 박대우였다.

“어, 명희 아냐? 살아 있었구나.”  
박대우는 반기운 얼굴로 얼른 명희의 손을 잡았지만 이내 표정이 굳고 시선을 떨어뜨렸다.

“가족들이 모두 다 그렇게 돼서 얼마나 힘드냐…….”  
박대우 일행에게까지 벌써 황전의 참사가 알려진 것이다. 가족 말을 꺼내자 명희의 눈가는 일그러졌고 눈물을 흘렸는데 얼른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죽일 놈들…….”  
박대우는 황전 쪽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다. 남준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온통 고양이만 있는 세상에 던져진 생쥐 꼴이었다. 박대우의 시선이 남준에게로 고정되더니 이내 표독스럽게 변했다.

“이거 병림 강 씨 놈 아냐!”  
당장이라도 총 개머리판으로 면상을 칠 것처럼 잔뜩 어깨에 힘을 주고 남준을 노려봤다.

“이놈은 죽여야 해!”  
“응!”

처음, 남준과 명희를 만났던 사내가 남준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버렸고 남준은 바닥에 쓰러졌다.

박대우와 함께 나타난 다른 사내가 남준의 몸 위로 올라타 남준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기 시작했다.

“안 돼요!”  
명희가 얼른 그 사내의 어깨를 잡고 남준

에게서 떨어지게 하려 했다.  
“내 맘쯤 들어보세요!”  
명희는 사내를 남준에게서 떨어뜨리는데 실패하자 박대우의 팔을 잡고 매달렸다.

“그만 해라.”  
박대우가 명령조로 말하자 사내가 다시 남준의 얼굴을 한 대 친 뒤 몸을 일으키며 씩씩거렸다.

“남준이가 물론 병림에 살지만 다른 강씨들하고는 달라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같은 당골래 집안이고요. 게다가 남준이는 나를 구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남준이가 나한테 와서 경찰이 우리 마을을 습격한다는 말을 전해줬고 우리 가족을 구하려고 했어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우리 가족은 구하지 못했지만요.”

“남준을 쫓던 사내와 박대우를 비롯한 다른 남자들의 도끼날을 세웠던 눈빛들이 스르르 무너졌다. 적개심으로 뜨거워졌던 사내들의 열기가 온도를 잃고 잠시 소강상태로 변했다.

“소대장 동무,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난 걸까요?”  
뒤에 있던 사내 하나가 다시 적개심의 군불을 지켰다. 박대우는 그 사내를 돌아봤다. 사내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우리가 작년 10월에 강가 놈들을 모조리 처단했지 않소, 그런데 이놈은 어떻게 살아났냐, 그 말이요.”

대번에 사내들 모두의 눈빛이 맞아, 맞아, 하는 단어를 달고 불을 지피며 남준을 쏘아봤다.

남준은 공색하게나마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긴장한 탓에 뇌마저 기능을 상실했는지 통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고 생각나는 구실거리가 없었다.

“그, 그때, 남, 남준이는 무, 무장에 심부름을 가 있었어요.”  
명희가 구원의 손길을 뻗어왔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가,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사내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 완주군, 전국 시·군 유일 '국가유산 재난안전 유공 표창'

## 조직·예산·현장 연계한 상시 안전망 구축 호평

완주군이 10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국 시군 중 유일하게 '2026 국가유산 재난 안전 유공' 국가유산청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 유공표창은 국가유산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완주군은 차관급 훈격인 국가유산청장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국가유산 재난안전 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완주군은 국가유산팀 신설이후 지역(군 전체 면적 821.38km<sup>2</sup>)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국가유산 관리를 위해 조직·예산·현장을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민관협력을 통한 촘촘한 재난안전 관리망 운영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국가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긴급보수 예산편성과 신속한 긴급보수, 국립완주연구소 유치와 협업을 통한 보존·발굴·현장 대응 기반 마련, 국가유산 소재 전통시찰 안전점검 및 현



장대웅 강화, 안전경비원 배치 및 수시 모니터링 실시 등이 호평받았다. /완주=염재복 기자

##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업무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지난 9일 오후 2시에 전주대학교 소망관 201호에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원장 정공식)과 학술 활동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한국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술 연구 활동, 한국학 관련 자

료의 조사 및 연구, 연구 인력의 교류, 학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자료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이 강점을 지닌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국학 연구를 개척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